

정책선거를 위한 언론보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광주 동구 선거구를 중심으로

주 정 민 (Joo, Chung-min)*
(E-mail: truejoo@paran.com)
정 승 호 (Jung, Seung-ho)**
(E-mail: parpar72@naver.com)

논문접수일 : 2012년 7월 1일
논문심사일 : 2012년 7월 25일
게재확정일 : 2012년 8월 17일

* 학위취득대학: 고려대학교
현직: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학위취득대학: 전남대학교 박사과정
현직: 전남대학교 언론홍보연구소 연구원

정책선거를 위한 언론보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광주 동구 선거구를 중심으로

<국문요약>

이 연구는 정책선거 문화 형성을 위해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제19대 총선에서 지역 언론이 어떤 형태의 선거보도를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호남정치 1번지'로 불리는 광주광역시 동구 선거구에 대해 지역의 신문과 방송이 어떤 기사를 보도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모두 해당지역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보도보다는 선거일정 및 후보자 정보, 그리고 사건사고 위주의 보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권자들은 언론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보다는 주변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언론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공약 및 정책에 관한 보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정책선거, 지역언론, 선거제도, 후보자, 선거공약, 선거문화

I. 문제제기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공약이라 할 수 있다. 후보자의 공약에는 누가 유권자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정책선거는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는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제시된 공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정책선거가 꽃피우고 건전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론은 유권자에게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실천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총선은 지역의 일꾼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따라서 지역 언론은 후보의 사상보다는 지역 일꾼으로서 능력과 정치적 업적 등을 유권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책선거를 주도해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유권자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의제를 제시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언론의 책무다. 그렇다면 지역 언론은 선거보도 과정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19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등 지역 4·11 총선보도 모니터단이 내놓은 <총선보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언론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보도 대신 관전평이나 관세분석 수준의 선거보도, 사건 따라가기식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2012.03.05).

이번 선거에서 정책 실종 현상은 ‘호남정치 1번지’라 할 수 있는 광주 동구에서 두드러졌다. 동구는 2009년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다 60, 70대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정책과 노인복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컸지만 전직 동장 투신사건, 관권선거 논란 등으로 정책선거가 묻히고 말았다. 지역 언론의 동구 선거구에 보도 형태는 이전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권자가 정책선거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보다는 후보자들의 동정을 보도하고 사건중심의 보도행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주민들이 어떤 후보가 비전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만 지역 언론은 선거문화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정책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실리지 않은 것은 취재의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이 존재한다면 출입처 중심의 취재

관행에서 벗어나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밝혀 내 유권자에게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선거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 19대 총선은 이전과 달리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선거정보 제공이 허용되면서 기존 언론의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이 높았다. 신규 매체의 등장으로 기존 언론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기존 언론의 역할이 재조명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였다. 기존 언론이 제 19대 총선에서 어떤 보도를 통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전환점에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새로운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언론, 특히 지역 언론이 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불법선거라는 오명을 쓴 동구의 선거 행태와 지역 언론의 보도 태도를 살펴보고 올바른 선거문화 형성을 위해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 고찰

1. 정책선거와 선거보도

선거는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는 장이며, 유권자는 정책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선호에 맞는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신두철 2005).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실상 또는 정책보다 후보자의 이미지, 주요 선거공약의 선점 여부, 유머감각,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 전략과 같이 후보자의 허상(虛像)이 보다 중요시된다는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다. 사바토(Sabato 1987)는 정치인의 유머가 국정운영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유머감각이 선거과정에

서 중요하게 부각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맥기니스(McGinnis 1968)는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닉슨(Nixon)은 TV에서 매우 나약한 이미지를 남겨 케네디에 진 바 있기 때문에 1968년 선거에서는 후보자 인생에 관한 사실보다 신화를 창조하는데 주력해 결국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로텐버그(Rothenberg 1989)는 후보자가 선거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미국 대통령선거전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이슈 보다 경제가 주요 관심사항이었으나,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는 더욱 경제 중심적 이슈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과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는 경제문제 보다 외교문제가 유권자의 선택에 보다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말빈(Malbin 1984), 독서(Dockser 1987), 브래그든(Bragdon 1987) 등은 선거자금의 동원이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과정에서 대중매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중매체에서의 활동을 상담해줄 수 있는 정치상담자와 정책전문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선거결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박희봉·장경석 2010. 1207-1208).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정당의 의사결정구조가 중앙당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중앙당의 권력을 가진 핵심인사들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정당보스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이유도 없고 단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후보가 필요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지방생들은 정당의 보스에 개인적인 호감을 보이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만이 각종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당 공천제도가 하향식 공천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후보자 선출과정이 보다 분권화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들이 중앙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

할 것이다(김정아·이하경 2009).

둘째, 선거과정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최대한의 득표를 위해 세부적인 정책 공약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활용하게 된다(Downs 1997, 139-140, 박희봉·장경석 2010 재인용 1208). 유권자의 입장에서 다수의 후보자들의 인격적 특성과 정책공약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다. 각종 선거에서 각 후보자 혹은 정당들이 제시하는 수많은 정책공약에 대해 일일이 후보자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동일한 중요도나 비중을 두어 상호비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정책공약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박희봉·장경석(2010)의 연구에서도 주요 방송 및 신문사들이 정책공약 비교를 통한 정보제공 계획을 세웠음에도 보도의 질적 수준이 아직 미흡하고 특히 후보 간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전문적인 정책공약 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후보자 역시 당선 후 자신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유권자에게 성실하게 제공하는 정책선거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후보자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뿐 아니라, 실제 선거과정에서 정책공약보다는 상대 후보자의 부도덕성, 자질 부족 등을 거론하며 자신이 당선되어야 할 논거보다는 상대 후보자가 되지 말아야 할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다(신두철 2005).

각종 선거의 후보자들은 정책선거의 명분보다는 선거 당선이라는 실리를 위해 선거 전략을 짜는 것이 보통이다. 정책선거가 후보자 자신의 당선에 유리한 경우에는 정책선거를 하겠다고 하지만 정책선거가 후보자에게 불리한 경우 또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나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공약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거과정에서 정책 공약에 의해 후보자가 결정되지 못하는 정책선거의 실패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선량(善良)을 뽑지 못하고 역선택을 하는 결과를 불러옴으로써 국가 및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박희봉·장경석 2010).

2. 선거에서 언론보도의 특성

선거에서 언론의 보도 형태나 관행 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먼저 우리 언론의 선거보도에서 나타난 가장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경마식 보도 관행이다. 경마식 선거 보도란 선거를 마치 스포츠 게임으로 인식하고 입후보자를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 보고 게임의 승패를 중심으로 중계하듯이 ‘당선 가능성’을 전제로 한 ‘우열의 차’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경향을 말한다. 후보의 성실성, 능력, 과거 행적, 도덕성 등 자질이나 정책적 이슈 같은 유권자의 선택에 필요한 본질적인 정보보다는 후보의 득표 전략, 상대 후보에 대한 공략 전술, 득표 전략, 상대 후보에 대한 공략 전술, 득표 전망, 현재의 우열상 등 게임적인 요소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마치 객석에서 경마를 구경하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는 보도를 말한다(이민웅 1997).

이러한 보도가 일상화되면 될 수록 유권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인 선거의 의미나 선거 공약과 정책 등에 대한 보도는 등한시하기 마련이다. 1992년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문의 경우 ‘대선의 의미와 후보 선택 기준’ 및 ‘선거 공약과 정책’에 관한 기사는 전체 선거 보도의 13.1%에 지나지 않았고(양승목 1993), 방송의 경우에는 신문보다도 그 정도가 훨씬 심해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계도성 기사는 전체 기사의 2.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웅 1993, 1997).

두 번째 보도 관행으로 떼거리(pack, herd)식 보도 경향을 들 수 있다. 경마 보도가 취재 내용상으로 관행이라면 떼거리식 보도는 취재 방식 상의 관행이라 할 수 있다. 떼거리식 보도란 각 후보가 만들어 주는 뉴스 이벤트에 기자들이 무리를 지어 쫓아 다님으로써 일률

적으로 가공된 정보만을 전해 줄 수밖에 없는 보도 경향을 말한다(김동규 1997).

세 번째로는 선거를 갈등과 대결 지향적으로 보도하려는 관행이다. 혹자는 이를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식의 ‘전쟁구조(戰場構造)’식 보도로 정의하기도 한다(백선기 1995). 갈등 지향적 보도는 경마 저널리즘의 변형으로서 언론이 오히려 후보자간의 불필요한 싸움을 증대하는 듯한 보도 양식을 말한다(이민웅 1997). 이런 보도 양식이 갖는 문제는 언론이 유도하는 갈등의 주요 대상이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상대 후보의 자질이나 이념적 색깔 그리고 선거 전략이나 전술 등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김동규 1997).

네 번째는 여론조사 위주의 선거 보도 관행이다. 최근 우리 언론이 선거 보도에 가장 자주 이용하는 보도 방식이 바로 여론조사이다. 거의 매일하다시피 지면과 화면에 등장하는 것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이다(김동규 1997). 사실 ‘여론의 과학적 측정’을 내세운 여론조사는 객관주의 언론의 구미에 가장 알맞은 정보원이다(양승목 1997). 따라서 여론조사를 선거 보도에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여론의 실상과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조사가 제대로 실행되고 제대로 활용된다는 전제 아래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언론이 선거 보도의 양식으로 즐겨 사용하는 여론조사는 주로 입후보자간의 ‘인기도’에 치중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흥미 위주로 이루어지고 후보들 간의 가상대결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그리고 지지율에 따라 후보들을 서열화 시킨다. 여론조사 보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결과 보도에서 나타나는 선정주의이다. 여론 조사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 충격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면 결과에 대한 확대 해석과 부정확한 예측 기사를 쓰기 마련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언론사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아래서는 더욱 그렇다(양승목 1997).

다섯 번째 선거 보도 관행은 겉으로는 공식화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는 각 언론사별로 특정 후보를 선택, 지지하는 보도 성향이 상존하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후보를 공표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며 이를 보도 내용에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겉으로는 모든 언론사가 한결같이 엄정중립을 표명하지만 실제로는 보도 내용을 통해 음양으로 비공식적 지지를 보내는 방식들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김동규 1997).

그 외에도 우리 언론의 선거 보도에는 폭로주의적 보도 경향, 미확인 보도 및 추측성 보도가 남발되는 경향, 가십성의 선거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 등이 자주 나타난다. 특히 가십성 보도는 독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 준다는 측면에서 선거 이면의 기사에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선거의 주요 정치적 사안들이 부각되지 못하고 정치외적 요소들이 부각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공명선거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선거 양상을 발굴하여 보도함으로써 역으로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오히려 선거와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낳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김동규 1997).

3. 지역 언론과 선거보도

지역 언론은 기존 연구를 통해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조철래(2006)는 지역 언론은 지역주민의 욕구와 취향에 맞게 지역사회의 문제나 관심사를 심층보도하고, 애향심의 고취를 통해 여론을 대변한다. 또한 지역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주민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함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개발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의 선거보도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돼왔다. 김진호

(1997)는 지역신문이 지방선거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도에서 양적, 질적으로 불공정 현상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후보에 따라 보도된 기사의 양에 있어서 불공정했을 뿐 아니라 사진이나 기사의 내용, 태도, 분위기 등과 같은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공평하지 못한 보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둘째, 여당 후보 공천과정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집권 여당에 유리한 분위기를 초반에 조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후보자의 우열을 가리는 합리적인 기준을 무디게 만들었으며 참신하고 깨끗한 후보자들의 정계 진출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 후보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분석과 후보 평가 작업이 부족하였으며 후보들의 정책토론회 등을 흥미위주로 접근하였다. 반면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 등을 단순하게 중계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넷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심층보도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지역신문은 후보자들의 선거유세나 득표활동 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내실 있는 선거기사나 제목을 만들어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쟁점이나 현안을 부각시키는데도 실패하였다. 또 지역사회 현안이나 쟁점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게재함으로써 주민들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 역시 부족했다.

임동욱(2002)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신문의 경우 자사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특정 후보를 이용하거나, 배타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방송은 정책 대결을 유도하기 보다는 단신 정도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일간지 보도 형태를 조사한 박원우(2011)는 2010년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일간지 보도 형태는 편파보도와 경마식 보도 등 선거보도에서 지양해야 할 각종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선이 유력한 특정후보에 줄을 서는 듯한 보도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고 특정 정당과 이 정당 후보에게 지면

을 대폭 할애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특정정당이 광주전남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데 직간접으로 도움을 줘 정치적인 중립성마저 흔들렸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다른 정당과 이들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에 대한 보도 회수와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약해 공정성, 형평성 시비를 낳기도 했다. 기사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불공정뿐 아니라 특정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한 뒤 다른 정당 후보가 이를 맹추격한다는 식의 경마보도도 여전히 많았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유권자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 측에서 언론사에 배포된 보도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해 기사를 작성하는 까닭에 판에 박은 듯한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는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취재 의욕도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연구는 한국 언론의 선거 보도 관행이 지역 언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II. 연구방법

지역 언론이 이번 총선에서 정책중심의 선거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광주동구 선거구에 대한 지역 언론의 보도 행태를 분석하였다. 일차적으로는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에서 선거운동기간동안 지역신문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발표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제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보도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지역 언론이 선거관련 정보를 보도하기 시작한 1월 25일부터 선거운동이 종료된 4월 10일까지 약 세달 간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지역신문의 경우 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광주매일의 4개 신문사의 보도내용을 분석하였다. 신문의 보도기사는 일반뉴스, 사설, 그리고 사진기사 등의 선거에 관한 모든 기사를 분석하였다. 방송의 경우 광주KBS, 광주MBC, KBC광주방송의 9시 지역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기사는 이들 방송뉴스에서 보도한 모든 기사였다. 이들 기사를 1)선거일정 및 출마정보, 2)후보공천 과정, 3)불법 선거 사건 및 수사, 4)후보자 주장소개, 5)여론조사 및 관세분석, 6)후보자 정책 및 공약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유목별 내용분석의 코딩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2명이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광주 동구지역의 특성과 선거과정

광주광역시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곳이다. 국비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6년의 대역사를 통해 들어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전시·공연은 물론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문화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보급 등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도심 속 문화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012년 개원 예정이었던 문화전당 건립 일정이 2년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주민들은 동구가 한국의 문화수도이자 아시아 문화의 허브도시로 발돋움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동구는 또 광주광역시의 중심 상권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역의 모든 도시에서 그렇듯이 동구는 1980년대 중반이후 도심 공동화, 고령화 등으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동구의 인구는 1985년 22만2814명이던 것이 2010년 10만4449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심각한 인구 감소와 인구 노령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된 건물들이 많아 도심 활성화 또한 시급한 곳이다.

이런 현안들은 자연스럽게 동구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마자들도 2011년 12월 13일 예비등록을 하면서 아시아문

화중심도시 발전, 노인 일자리 창출, 도심 재창조 등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책대결로 나아가야 할 선거가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과열돼 불법 탈법선거로 변질됐다.

2012년 2월 20일부터 총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자 일부 예비후보들은 불법으로 선거인단 모집에 나섰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예비후보들은 선거인단 모집에 열을 올렸고 이 때문에 ‘닥치고 선거인단 모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선거인단 모집 경쟁에서 정책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공천과정에서의 과열로 2월 26일 광주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내 꿈나무도서관에서 불법으로 선거인을 모집하던 조모씨가 광주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 씨는 해당 도서관의 관장이자 전 계림1동장으로 지역구 현역의원을 돕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관권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됐다. 선관위가 압수한 자료에는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는 ‘2012년 주민등록 세대명부’와 경선선거인모집을 위한 조직표, 모집실적표, 모집 관련 소요비용이 적힌 계획서 등이 포함됐다. 시 선관위는 이 도서관이 현역 의원의 선거인단 모집 사무실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합민주당은 동구에서 사고가 나자 곧바로 선거인단 모집 활동을 중지하고 3월 2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동구는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 사건이라는 참극에 이어 관권선거 혐의로 구의원과 통장 등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져 한 순간에 ‘호남 정치 1번지’에서 ‘불법 선거 1번지’로 전락했다.

2. 광주동구 지역의 선거보도 특징

이번 동구 선거구에 대한 지역 언론의 보도형태는 민언련의 모니터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민언련은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광남일보 광주매일 광주일보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등 7개 지역 신문사 선거 보도를 모니터한 결과 선거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정당간의 후보 간의 정책 및 공약은 간대 없고 오로지 민주통합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의 반발만이 기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 투신사건이 터진 직후인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모니터한 내용을 보면 지역 언론의 공정성, 균형성, 정책중심, 유권자 중심 보도 실종을 꼬집었다. 동구 사건을 촉발시킨 민주당 경선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취재 보도물은 거의 없고 당 입장이나 후보구도 변화 예상 기사만 난무해 더 높은 기획과 취재력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지역 언론의 무원칙하고 깊이 없는 보도태도는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구 자살사건’으로 호들갑을 떨던 언론이 3월 첫주 컷오프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자 ‘모바일 경선 문제점’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사라지고 컷오프 탈락자들의 반발과 무소속 출마설 등에 대한 중계방송식 보도만 이어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경선 외엔 어떤 정치적 관심사도 없는 듯 오직 민주당 이야기만 쏟아낸 점도 지적했다(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2012.03.14).

민언련이 총선을 2주 앞두고 실시한 모니터 내용을 보면 지역 언론의 정책검증 보도실종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민언련은 보도하는 기사 거의 모두가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중계하는 ‘단순 전달자’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공약을 검증하려는 시도나 기사를 걸러내는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2012.04.02).

실제 4개 지역신문의 보도내용을 분석한 결과 민언련의 모니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1>에 제시한바와 같이 광주 동구에 관

한 선거기사는 총 325건이었다. 이 중에서 약 삼분의 일인 108건이 전직 동장 투신사건과 관련된 기사였다.

<표 1> 주요 지역 일간지의 광주동구 선거관련 보도내용 분석 결과

주제	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광주매일	계(%)
1) 선거일정 및 출마 정보	16	11	9	15	51(15.5)
2) 후보공천 과정	15	12	13	7	47(14.2)
3) 불법선거 사건 및 수사	32	25	23	41	121(36.7)
4) 후보자 주장 소개	10	12	10	17	49(14.8)
5) 여론조사 및 판세분석	5	7	2	4	18(5.5)
6) 후보자 정책, 공약	5	9	7	23	44(13.3)
계	83	76	64	107	330(100.0)

즉 불법 선거 사건 및 수사에 관한 소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기사는 약 팔분의 일인 30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비교적 많은 보도를 한 후보공천관련 기사의 상당 부분도 이 사건이후 민주통합당의 후보 공천에 관한 기사였다. 따라서 사실상 신문보도에서 정책에 관한 보도는 그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불법선거 사건 및 수사에 관한 보도에 묻혀 그 의미가 희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거를 1주일 앞두고 지역신문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보도하기는 했으나 1, 2단 크기(무등일보 4월 4일자 4면 양형일 “주민 편의·복지시설 확충”, 4월 9일자 4면 이병훈 “동네별 맞춤형 7대 공약 추진”, 전남일보 4월 5일자 4면, 광주매일 4월 9일자 5면 김강열 “지산유원지 활성화”)로 작게 취급한데다 그 내용도 공약을 나열하는 식에 그쳤다.

정책 선거 부재에 대한 구조적 문제나 실태에 대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분석대상인 4개 신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정책보도의 실종 원인은 취재인력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민언련이 7주차 모니터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광주·전남

신문들 대부분이 취재 인력이 부족해 정치부 기자들 2-3명이 거의 모든 선거 지면을 메우고 있다(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2012.04.02). 그러나 보니 정책 보도라 할지라도 이를 단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나 제조업체가 모기업인 지역 언론들은 자본의 취약성 때문에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곧 신문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감시와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지역방송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광주동구 선거에 관해 138개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중에서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기사는 5건에 불과했으며, 85건이 전직 동장 투신사건과 관련된 기사였다. 즉 불법선거 사건 및 수사 진행 관련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방송보도에서 선거일정 및 출마정보와 후보공천 과정에 관한 보도는 대부분 이 사건이후 광주 동구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누구를 내세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방송보도의 대부분이 선거정보와 정책에 관한 보도보다는 사건 사고 위주의 보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방송들은 동구 투신사살 사건이 발생한 2월 26일부터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구속된 3월 23일까지 불법 선거 사건 및 수사에 대한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투신 자살사건이 왜 일어났고, 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지, 모집 과정에서 불법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민주통합당 내 경선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역방송들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경마식으로 보도하거나 경선 중단, 공천 갈등 격화 등 당내 움직임 보도하는 선에서 그쳐 언론으로서의 비판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1) 아울러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도한 기사도 동구

1) 이러한 대표적인 보도사례는 다음과 같다. 2월 29일 광주MBC 뉴스데스크 ‘관련선거 의혹 유태명 소환’, 3월 2일 광주MBC 뉴스데스크 ‘동구 무공천 복잡’, 3월 5일 광주MBC 뉴스데스크 ‘광주 동구 불법 선거운동 혐의 6명 영장’, 3월 8일 광주MBC 뉴스투데이 ‘광주 동구청장 소환조사’, 3월 23일 광주MBC 뉴스데스크 ‘동구청장 구속’, 2월 27일 광주KBS 930뉴스 ‘투신사태 동구 선거인단 모집 중단’, 2월 29일 광주KBS 뉴스9 ‘투신사태 수사 급물살’, 3월 2일 광주KBS 930뉴스 ‘투

만 집중 조망하지 않고 다른 지역구와 함께 소개해 내용이 빈약하였다.

<표 2> 지역방송의 광주동구 선거관련 보도내용 분석 결과

주제	광주KBS	광주MBC	KBC 광주방송	계(%)
1) 선거일정 및 출마 정보	7	10	7	24(17.4)
2) 후보공천 과정	2	5	11	18(13.0)
3) 불법선거 사건 및 수사	19	23	43	85(61.6)
4) 후보자 주장 소개	1			1((0.7)
5) 여론조사 및 판세분석	1	1	3	5(3.6)
6) 후보자 정책, 공약		4	1	5(3.6)
계	30	43	65	138(100.0)

3. 정책보도에 관한 내용

후보자들의 정책에 관한 기사들도 대부분 동구지역에 관한 공약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공약이었다.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신문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내용이 전국적인 차원의 공약들이고, 지역에 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후보자들이 전국적인 차원의 선거공약을 제기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 언론이 지역 정책을 유도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동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축의 중심지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에

신사태 무공천 결정', 3월 8일 광주KBS 뉴스9 '박주선 유태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2월 27일 KBC광주방송 '동구청장 등 3명 수사의뢰', 3월 1일 KBC광주방송 '광주 동구 전략공천 확정, 내분 격화', 3월 3일 KBC광주방송 '동구 투신사건 동구의원 고발', 3월 12일 KBC광주방송 '동구 불법 경선 사조직 수사 확대', 3월 19일 KBC광주방송 '박주선 의원 출마 관심'.

대한 공약이 많이 보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었다.

<표 3> 지역신문의 후보자 정책 보도 주요내용

후보자 정책	주요 내용(기사 제목)
전국적인 정책과 공약	“유류세 10% 인하해야”, “대기업 이윤고용할당제 도입”, “한미FTA 농업대책 서둘러야”, “서민이 행복 한 세상 만들 것”,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도입을”, “한미 FTA 농축산 분야 보완책 시급”, “한미 FTA 무효화해야”,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를”, “정책전환 통한 재벌규제” “노인전문병원 등 의료복지 강화” 식량안보차원 농업대책 시급“우리밀 생산단지 확대해야” 등
지역적인 정책과 공약	“공·폐가 주차장 등 활용”, “일자리 3만5000개 창출”, “민주주의전당 유지 나서야”, “청소년 복합 문화관 건립 필요” “동구 도시가스 보급률 낮아”, “동구 골목형 소방차 도입”, “민주주의전당 광주 유치해야” 등

신문은 정책에 관한 선거보도에서 후보자들의 정책을 단순히 반영하여 보도하는 특징을 보였다.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 검증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거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 기사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기사가 후보자들이 뉴스릴리스 문으로 제시한 내용을 받아 정리하여 보여주는 형태의 보도를 하였다. 따라서 기자의 분석보도는 사라지고, 후보자들의 주장만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보도특징을 보였다. 즉 “어느 후보자가 무엇을 하겠다고 밝혔다”식의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광주 동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26일 “대기업 이윤고용 할당제를 도입해 매년 이윤 수준에 따라 일정 수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예비후보는 "공공기업에서도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무등일보 2012.02.27, 4).

○○○ 무소속 광주동구 국회의원 후보는 3일 "주민들의 체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체육 전용구장 신축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심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겠다" 밝혔다.... (광주 매일신문 2012.04.04, 4)

○○○ 무소속(광주 동구) 국회의원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산유원지 활성화사업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지난1978년 4월 문을 연 지산유원지가 30년이 지난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며 (전남일보 2012.04.09, 4)

19대 총선은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하였고, 아울러 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어 특정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혹은 관심을 끄는 후보자의 공약을 확대하여 보도하지도 못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선거구조의 한계로 인해 지역신문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매일 한 면을 할애하여 선거정보란을 만들어 후보자 소식을 전하는 형태의 보도를 하였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보도의 심층성이 사라지고, 후보자들의 주장이 요약되어 지면에 실리는 형태의 보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후보자들의 주장 등을 한 눈에 볼 수는 있었으나 후보자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

민언련도 제19대 총선을 모니터링 결과 지역신문의 경우 민주당 및 민주당 후보 중심, 비민주당 전남지역 그리고 여성 및 정치신인 홀대, 정책중심이나 공약 비교 등을 통한 유권자 선택을 돕는 보도 부족, 후보 동정 중심 또는 관세추이와 이슈만 쫓는 경마식 보도 등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신문들은 일관된 후보별 보도기준 같은 '선거보도준칙'조차 발표하지 않거나 아예 적용

하지 않는 듯한 구시대적이고 편파적인 보도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신문은 후보동정보도에서 특정 후보를 내놓고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될 만큼 편파보도를 하기도 해 과연 언론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알기나 하는 지 의문을 들게 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민언련 모니터 결과 의견서, 2012.05.09)

후보가 공약에 대한 방송보도의 경우 정책과 공약에 대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사의 대부분이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표 4>에서와 같이 방송에서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5개의 기사 중에서 4개의 기사가 후보자들이 발표한 공약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공약에 관해 분석한 1개의 기사도 공약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선거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사였다.

<표 4> 지역방송의 선거방송 기사 자막 타이틀

구분	주요 내용(기사 제목)
기사제목	"민주당 광주지역 공천자 공약발표", "불협화음의 설익은 공약", "격전지 광주동구", "격전지.. 이것이 쟁점", "총선- 광주 동구"

지역방송의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에 관한 보도는 방송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아주 짧은 시간에 주요정책만을 나열하여 보여주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분석기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한정된 시간에 기사를 전달해야 하는 방송뉴스의 속성으로 인해 후보자별로 주요 정책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형태의 뉴스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유권자인 시청자들은 후보자정보와 대표공약 정보만을 접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 4.11 총선에 출마한 광주와 전남지역 후보들의 주요 정책

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권자 8만 9천여 명의 광주 동구로 이 선거구에서는 모두 8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호○번 ○○당 ○○○ 후보 ○○ 출신으로 현재 ○○○입니다. <인터뷰-○ 번,○○○당 ○○○ > 1.재개발 재건축 협의회구성, 2.재래시장 골목상권 보호,

기호○번 ○○○ 당 ○○○ 후보는 ○○ 태생으로 ○○○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터뷰-기호○번 ○○○ 당 ○○○ > 1."힘내라! 취업촉진수당" 지급,3.보육에서 노후까지 사회가 책임...(A방송사 2012년 4월 2일)

민언련은 5월 9일 제19대 총선보도 모니터를 끝내며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4·11 총선(경선 포함)을 전후한 3개월여의 지역 언론 총선보도 모니터를 통해 지역 언론의 선거보도 행태가 과거 구태를 벗지 못하고 여전히 심각한 편파보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런 보도태도는 물론 공정한 선거보도로 참 지역일꾼을 뽑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발전, 나아가 지역 정치와 한국정치 발전을 이루어야 할 지역 언론이 제 사명을 저버렸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민언련 모니터 결과 의견서, 2012.05.09) 이와 같이 제 19대 총선에서 지역 언론은 정책선거보다는 사건중심의 보도와 지나친 뉴스밸류 중심의 보도를 함으로써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V. 결론 및 제언

선거 때마다 선거보도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이 유권자 중심의

정책정보다. 즉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제 19대 총선보도에서 지역 언론은 유권자 중심의 정책정보보다는 후보자 중심의 보도에 치우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언론의 선거보도에서 유권자와 정책은 사라지고 선과과정에서 후보자 중심의 불협화음 등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 중심의 보도가 아닌 유권자 관점에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선거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과 이슈보도에서도 후보자들이 제기하는 정책이나 이슈보다는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과 이슈를 발굴하여 보도함으로써 지역선거를 정책선거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의 선거보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사건과 사고 중심의 부정적인 기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뉴스가치 중에서 “갈등성”, “화제성”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19대 총선에서도 지역 언론의 선거보도의 대부분이 정당 간 갈등, 후보자간 갈등, 그리고 경선과정에서의 갈등 및 사건사고 위주의 보도가 중심이 되어 왔다. 지역 언론이 선거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보도할수록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흥미위주의 사건중심으로 선거에 관한 보도를 자제하고 긍정적인 측면의 기사를 함께 실어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제고하고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선거보도가 필요하다.

지역 언론은 선거에서 지역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후보자들에게 부각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공약을 유도함으로써 정책선거는 물론 지역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이슈부각과 이를 지역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보도를 통한 감시 등도 중요하지만, 각종 토론회 등에서 후보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하도록 하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이슈로 부각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총선은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선거라는 점

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역 언론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총선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지역신문의 경우 제한된 인력과 지면으로 다수의 선거구에서 수많은 후보자가 등장하는 총선보도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방송의 경우에도 지역신문과 동일하게 제한된 인력과 방송시간으로 수많은 선거구와 후보자의 정책을 충실하게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지역방송의 경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제 19대 총선을 정책 중심의 선거를 이끄는 데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지역 언론이 지역선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언론이 공동으로 취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후보자 정책검증단과 같은 공동의 자문단 등을 운영해 이를 보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한된 지면과 시간, 그리고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가용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보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지역 언론은 선거보도에서 사건사고 위주의 보도에서 벗어나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책중심의 선거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강미은, 2007, "핵심과 지엽을 제대로 가리는 객관적 심판자 되라", 『신문과 방송』, 5월호, pp. 40-43.
- 권혁남, 2006, "후보자 검증부터 설문지 공개까지", 『신문과 방송』, 5월호, pp. 58-61.
- 김동규, 1997, "한국언론의 보도 관행", '97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재홍, 2002, "공약중심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문연구』, 제33호, pp. 12-22.
- 김정아·이하경, 2009, "한국정당의 분권화 및 포괄성에 관한 비교 연구: 제18대 총선의 후보자 공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1호, pp. 183-117.
- 김진호, 1997, 『주민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지자체장 선거보도 방향』, 서울: 불위.
- 박원우, 2011, "신문의 선거보도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신문의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전남대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박희봉·장경석, 2010, "정책선거의 구조적 취약성: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4호, pp. 1205-1226.
- 백선기, 1996, "한국신문의 선거보도 경향과 심층구조: 15대 총선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96 봄철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신두철, 2005, "한국 재보궐선거 캠페인의 특징과 정책선거 실현방안",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2호, pp. 73-92.
- 안차수, 2006, "선거보도를 중간 점검한다", 『신문과 방송』, 4월호, pp. 108-111.
- _____, 2006, "형식상 정책추구 모양새, 내용은 중앙정치 분열구도", 『신문과 방송』, 7월호, pp. 110-114.

양승목, 1997, "여론조사 바로 보고, 바로 읽기", 『대통령 선거보도와 한국 언론 세미나 보고서』, 한국언론연구원, pp. 47-66.

이민웅, 1997, "대통령 선거보도, 어떻게 가야 하나", 『대통령 선거보도와 한국의 언론 세미나 보고서』, 한국언론연구원,

빌 코바치(Bill Kovach) 저, 이재경 옮김, 2011,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서울: 언론진흥재단.

임동욱, 2002, "선거보도 검증: 광주·전남언론", 『신문과 방송』 2002년 7월호. pp. 15-17.

정낙원, 2012, "트위트 대화 내용 분석 선거여론흐름 예측력 높여", 『신문과 방송』, 3월호, pp. 24-33.

정대필, 2007, "경제가 주요이슈 될 것, 경마보도 말고 정책 보도 하자", 『신문과 방송』, 5월호, pp. 51-56.

조철래, 2006, "지역신문의 선거보도와 게이트키퍼 과정에 관한 연구: 갠즈(Gans)의 다원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4호, pp. 387-509.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2012, 총선보도 모니터 보고서 및 의견서.

Bragdon, Peter, 1987, "What's in a Name? For Consultants, Much Cash," *Congressional Quarterly weekly Report*, Dec. 19.

Dockser, Amy, 1987, "Nice PAC You've Got Here: A Pity If Anything Should Happen to It", *The Washington Monthly*, January.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진인권.안도경 역, 1997, 『민주주의 경제학 이론』, 서울: 나남출판.)

Malbin, Michael, 1984, "Looking back at the Future of Campaign

Finance Reform: Interest Groups and American Elections", Malbin, M. J. ed., *Money and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Chatham, N.J.: Chatham House.

McGinnis, Joe, 1969, *The Selling of the President 1968*. Simon & Schuster, Inc.

Rothenberg, Stuart, 1989, "Pocketbook Issues still Matter the most", *The Wall Street Journal*(March 28).

Sabato, Larry, 1981, *The Rise of Political Consultants: New ways of winning election*. New, York: Basic Books.

**A Study on the Roles of Press Coverage for a
Policy-Based Election:
with a Focus on the Dong-gu Election District
of Gwangju**

Joo, Chung-m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ung, Seung-h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ceived to investigate what roles the press should play in order to contribute to a policy-based election culture. With such purpose, the study examined various forms of election coverage by the local pres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In particular, the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ports on the Dong-gu election district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which is commonly called the 1st Avenue of Honam politics, by local newspapers and broadcasting station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both local newspapers and local broadcasting stations only focused on election schedules, information about the candidates, and events and accidents in their coverage rather than the policies and election pledges regarding the areas. The findings indicate that from the press, voters received marginal information rather than information about the policies and election pledges of the candidates. It was thus confirmed that the press should take interest in reporting the election pledges and policies of the candidates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in order to contribute to a policy-based election.

Keywords : policy-based election, local press, election coverage, candidate, election pledge, election culture